

세포 통합관련 연석회의 결렬에 대한 세포병리사회 입장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포병리사회 회원여러분.
세포병리사회 회장 김순재입니다.

먼저 인사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을사년 올 한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바라시는 모든 소원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24일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이하 '세전위')의 세포 통합 관련 연석회의 결렬에 대한 입장문을 접하고 회원님들의 설 연휴 편안한 휴식을 위해 세포병리사회의 입장문을 오늘 올려드리는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세포병리사 통합에 관한 4번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11월 23일 세포병리사회 연수교육 및 총회때 회원분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세포병리사회에서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세포병리사 관련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선의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기에 세포병리사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의에 임하였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노력과 본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론은 세포병리사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 결렬로 끝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세포병리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약정서(전문 및 반박문은 입장문 하단에 기재)**를 2025년 1월 15일 5차 회의에서 사인을 하라고 하였기에 통합회의 결렬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3년의 역사를 가진 세포병리사회는 임상병리사 업무 중 세포스크린을 전문 분야로 먼저 개척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임상병리사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한세포병리학회 산하 세포병리사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학회에서도 세포병리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세포병리사회를 일방적으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직속 산하도 아니고 조직세포검사학회 소속의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세전위)에 통합을 하기로 한다는 것은 세포병리사회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포병리사회 회장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잘 살고 있는 집을 버리고 남의 월세 살이를 하고 있는 집으로 한두명도 아닌 자식들을 데리고 무조건 들어오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느 부모가 잘 살고 있는 집을 버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월세 살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장인 저로서는 우리 회원들에게 제 양심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인다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막연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이 많다고 보기에 아직은 세포병리사회가 모든 걸 포기하고 세전위와의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전위 회원들이 누구입니까. 모두 세포병리사회의 회원이 아닙니까. 그동안 세전위에서는 세포병리사 회원의 발전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현재 해 놓은 것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세전위는 세포병리사들의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방적인 논리로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전위가 세포병리사회와 통합을 진정 원한다면 세전위가 나름 세포병리사회와 똑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 뒤에야 가능하며 그렇게 해야 세포병리사회 회원들도 같은 임상병리사이니 두 조직의 존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세포병리사회의 회원들은 KAC 자격인정서를 가지고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포병리사회가 대한세포병리학회와 산하 운영위원회를 통해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전위는 세포병리사회와 통합을 한다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KAC자격인정서가 아닌 다른 것으로 현재처럼 우리 회원들이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자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전위에서는 세포병리사회와의 통합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합당한 법제화된 조건을 갖춘 후 세포병리사회와의 통합에 나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포병리사회는 대한세포병리학회 산하 소속으로 세포병리사회원의 관리와 교육을 위임받아 운영을 합니다. 이는 법정단체인 대한세포병리학회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현 질관리 체계에서는 세전위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은 세포 업무를 하기 위해 지금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평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원 개개인이 학회 평점 이수를 위해 수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회가 없기에 회원의 권익도 지금처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데 왜 책임도 질 수 없는 우선 통합만을 운운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상병리사이기에 세전위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우리 세포병리사회의 회원들도 임상병리사이고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위상이 높아지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기 때문이지만 지금의 세전위는 아닙니다.

세포병리사 통합관련 1차 연석회의때 조직세포검사학회를 조직과 세포로 나누는 것이 병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의 평점 이수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리고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병리과 소속의 2개 정도의 분과 학회는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단순히 조직세포분과학회를 분리해 놓겠다는 논리가 아니고 통합을 위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산하 단체인 '세포병리분과학회'가 만들어지면 현 대한세포병리학회 운영위원회에 세포병리사로서 명분도 얻게 되어 통합을 위한 초석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포병리사회라는 집을 놓아 두고 사람만 빠지면 그 집에 또 누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면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직세포분과학회는 분리가 불가하다고 하였기에 현재 세포병리사회에서는 조직과 세포의 분리가 아닌 세포병리사회가 중심이 되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의 분과 학회를 만들어 달라고 협회에 요청을 하였으며 성사가 될 경우 세포병리사회는 대한세포병리학회와 다리 역할을 하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소속 회원으로서 세포병리사 및 전문병리사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활동을 할 것이며 학술적인 부분은 현재처럼 대한세포병리학회 소속의 세포병리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학술 함양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을 협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답변은 검토 후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포병리사회 회원 여러분!

세포병리사회가 없으면 회장을 못해서 제가 이런 결장을 내린 것은 절대 아니며 오직 저는 세포병리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만 보고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장직에 연연하지 않으며 해도 되고 안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포병리사회를 만들고 현재까지 세포병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선배님들과 선임 회장님 그리고 세포병리사회만 믿고 열심히 현업에 종사하는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저는 현 상태로는 세전위와의 통합은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830여명의 세포병리사 회원들에게 고합니다.

세포병리사회는 절대로 우리 세포병리사회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 세포병리사회 회원들께서는 세포병리사회를 믿고 주변에서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의연하게 현업에 충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 세포연수 교육 및 총회에서 말씀드린 협회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했던 이유는 혹시 대한세포병리학회 세포병리사회 회원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협상 결렬이라는 결론이 나서 세포병리사 회원들이 직장에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과 눈총을 받을까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세포병리사회를 폄하하고 불이익을 준다면 왜 우리가 세전위와 현재 통합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당당히 말씀하시고 제가 올린 입장문을 한번 짚은 시간을 내어 보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는 지난 1월 15일 연석회의가 결렬된 주 원인인 협회 공문과 약정서 그리고 약정서에 대한 반박문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포병리사회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세포 통합관련 연석회의 결렬에 대한 세포병리사회의 입장문을 끝맺을까 합니다. 다음에 뵈실 때까지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3일 세포병리사회 회장 김순재 배상.

==== 아 래 ====

이하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발송한 약정서 및 세포병리사회 반박글(파란색 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수 신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세포병리사회 회장

(경 유) 간사

제 목 약정내용 검토서 제출 요청의 건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에서는 세포병리사회&세포전문임상병리사회 통합에 대한 회의를 4차까지 진행해오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합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세포병리사회&세포전문임상병리사회에 **유선으로 전달한 내용을 약정서로 정리**하여 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의 확인을 거친 후 확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양회가 찬성한 공동보수교육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3. 이에 약정서를 첨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5년 1월 9일(목)까지 검토의견서를 협회 대표메일(kamt@hanmail.net)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붙임. 세포병리사회&세포전문임상병리사회 통합관련 약정서 1부. 끝.

→ 공문에 언급된 “세포전문임상병리사회”가 조직세포검사학회 산하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위원회”를 칭하는지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회에서는 이하“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로 명칭함.

→ 공문에 “**유선으로 전달한 내용을 약정서로 정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의 약정서에 있는 내용은 유선으로 들은 적이 없으며 유선으로 전달을 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는 세포병리사회의 임원들간의 불화를 조성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전에 서로 약속도 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의 약정서를 아무 말도 없이 공문으로 보내어 세포병리사회내에 불협화음을 야기한 것 자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래 약정서를 보면 세포병리사들의 생업이 달린 “KAC 자격인정서”와 관계 있는 세포병리사회를 아무 대책도 없이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와 통합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심히 불쾌할 뿐아니라 KAC자격인정서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포병리사들의 입장과 현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탁상 공론에 의한 졸속 행정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이 약정서는 절대로 동의 할 수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이에 1월 15일에 실시 예정인 연석회의가 약정서에 서명을 받기 위한 회의라면 세포병리사회에서는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으니 이에 공식적인 서류로 답변을 바랍니다.

*약정서에 서명이 불가한 상세 이유는 하단 약정서에 해당 내용별로 기록 함.

약 정 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와 세포병리사회 (이하 '양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 회원의 업권 수호, 권익 보호, 학술 발전 도모를 위해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 회원의 업권 수호, 권익 보호, 학술 발전 도모라고 하셨는데 누구만의 업권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세포병리사회의 회원도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회원으로 현재 열심히 임상병리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 수여하는 "KAC 자격인정서" 로 이전에는 병리의사들이 하던 세포 스크린 업무를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대한세포병리학회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임상병리사의 업권수호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통합 정책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회원이기도한 세포병리사회 회원의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으며 학술 발전적인 부분도 병리사끼리의 학회 활동은 발전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사항을 조합해 보더라도 세포병리사회에서 지금까지 병리사의 위상과 업권수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세포진단의 주체가 되는 대한세포병리학회의 인정도 받지 못한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와의 통합을 공정한 잣대가 아닌 편향된 의견으로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이는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처음부터 결과를 정해 놓고 통합을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포병리사들은 세포병리 관련 스크린을 하기 위해 대한세포병리학회와 국립암센터 주관의 교육을 받고 KAC자격인정서를 취득하여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이기 때문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세포병리 스크린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세포병리사회가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 탈퇴를 하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와 통합을 했을 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세포병리사회 회원들의 업권과 권익, 학술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대한세포병리학회의 KAC 자격 인정서가 없으면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근거: 레드북 세포병리 C01.0015 문항 선별 검사하는 세포병리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한병리학회의 공식적 답변은 " KAC 자격 인정서를 득한 세포병리사인 경우만을 인정한다." - 2025년도 병리과 질 관리 피검 기관 교육) 이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세포병리학회를 탈퇴하고 세전위와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협회에서 회원들의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너무 가벼운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통합에 관계되는 문제는 이러한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누가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세포병리사회가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 탈퇴하고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와 통합을 바란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현재 처럼 세포 스크린 현업에 종사 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법제화 시키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 회원의 업권 수호, 권익 보호, 학술 발전 도모라고 보는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전집행부에서 조직세포검사학회 소속의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전에 병리사 선배님들이 만들고 현재 후배들이 힘들게 가꾸어온 4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포병리사회를 없애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말이 되지 않은 일 일뿐더러 그 동안 병리사 선후배들이 피와 땀과 노력으로 병리의사들도 그 능력과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조직을 없애는 것이 정녕 올바른 일인지 묻고 싶고 이에 한번 더 어느 것이 우리 임상병리사 전체를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 약정 원칙

1) 양회 소속 회원은 모두 임상병리사로 구성되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양회는 (이하 '협회') 소속 산하단체의 위원회로 통합된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와 세포병리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세포병리사회의 회원은 스크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현재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는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에서 스크린 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따라서 그 자격증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으로만 보더라도 통합을 의한 서로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서로 격이 맞지 않으며 조직을 통합할 때의 전제 조건은 서로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조직이 둘 있을 때 관리나 기타 여러 가지의 야기 될수 있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능이 다른 두 조직을 편의에 의해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이 조직으로 기존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 결정권이 대한세포병리학회에 있기 때문에 세포병리사회의 입장에서 볼때 이런 식의 통합은 병리사의 업권수호와 권익에도 해가 될 뿐이지 아무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포병리사회 회원이 남이 아닙니다.

세포병리사회 회원들도 세포병리사 이전에 임상병리사로서 모두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도 협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단순히 협회 소속의 회가 아니라고 해서 세포병리사회를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와 통합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사실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가 현실 점에서 협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슨 도움을 줄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협회의 전집행부에서 누군가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단체로 인해 결국에는 지금의 불화가 조장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현 협회 집행부에서는 조직세포검사학회의 얘기만 듣지 말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 임상병리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더 심사 숙고하여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포병리사회를 없애는 것은 단순한 이해 관계만을 생각하여 힘들게 병리사들의 위상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선배들이 이뤄온 자랑스런 역사를 잃는 것입니다.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협회와 세포병리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2) 양회는 통합 협의 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통합을 완료하며, 통합 방해 요소가 발생할 경우 협회에 위임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만약 통합 후 세포병리사들이 평점이수 및 생업과 관계되는 "KAC 자격 인정서"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협회에서 먼저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포병리사회와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의 통합이 단순히 두 조직을 하나로 합치면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산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나 자신 또한 병리사이기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병리의사들은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하나의 학술모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병리사회를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따른 불안이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3) 양회가 통합에 합의하지 않는 한, 통합 관련 활동은 의미가 없으며,

통합에 합의하지 않은 단체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책임을 부담한다.

끝으로 세포병리사회 요청사항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5차 회의에 앞서 협회에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세포병리사가 실시중인 세포 슬라이드 Screen에 대한 업무가 진료의 영역인지, 검사의 영역 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급선무이라고 생각하기에 회의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그에 따른 증거가 필요함(처음 협회에서 통합의 취지가 PA병리사(세포전문병리사)의 법적인 인정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하였고 그래서 세포병리사회에서도 협회와의 연대로 협회의 목적 달성에 일조하기 위해 통합 회의에 참여 했기에 이에 대한 답변이 꼭 필요함).

->세포 선별 업무는 세포병리의사들의 업무 영역의 일부를 세포병리학회에서 교육하고 자격을 인정해준 자에 한해 업무수행을 인정 받는 것으로 세포병리학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병리사들의 자체 교육으로는 업무수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번의 통합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병회와 세전위가 통합을 한다고 하여도 생업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세포병리사회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세포병리학회 소속으로 남아 교육을 받고 평점을 이수 해야 되는 관계로 혼란만 가중 될 수 있고, 세포병리사 회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회 차원이 아닌 회원 개개인이 대처를 해야 되는 관계로 세포병리사 회원의 권익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따라서 현시점에서 Screen 업무에 대한 정의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는 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드리며, 아울러 세포병리사와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의 상생 및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협회 산하의 세포전문병리사 분과 학회를 신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